

# 연호지의 복구와 내륙문화창달에 관한 연구

- 농업문화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

김추윤\* · 홍석표\*\* · 김지희\*\*\* · 민영근\*\*\*\*

(\*신흥전문대학 · \*\*신평중학교 · \*\*\*당진뉴스 · \*\*\*\*당진문화원)

##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Yein-Ho reservoir & promotion of inland culture

Choo-Yoon Kim\* · Suk-Pyo Hong\*\* · Ji-Hee Kim\*\*\* · Young-Kun Min\*\*\*\*

\* Pro., Dept. of Cadastre, Shin-Heung Collage, Uijungbu 480-020, Korea

\*\* Supervisor, ShinPyung Middle School, Dangjin 343-810, Korea

\*\*\* Publisher, DangJin News, Seoul 100-014, Korea

\*\*\*\* Chief, DangJin Culture Center, Dangjin 343-800, Korea

### 적 요

합덕방죽(연호지)은 의림지에 버금하는 농업문화재로 내포평야에 남아있는 유일한 옛 저수지터이다. 후백제의 건원에 의해서 축조된 1,0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덕방죽은 조선실록, 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대동여지도 등 고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연산군때에는 顯淑公主에 사여된 적도 있으며, 고부 동학란보다도 1년 앞서 수세문제로 대규모 농민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던 유서깊은 저수지이다. 또 독제, 민요, 속담 등 합덕방죽과 관련된 많은 민속문화적인 내용이 전해오고 있는 귀중한 향토유산이다.

공업화의 물결에 의하여 내포지방에 각종 임해공단이 들어서면서 합덕방죽은 농업문화의 발생지로서의 의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차제에 합덕방죽을 복원하여 농업교육장, 농업박물관 등을 신설하고 종류별로 농업포장을 만들어 농어민이나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특히 내포지방의 상징물인 쌀문화의 창달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공단지역으로 변해감에 따라 공업화 추세에 의하여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예당평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1,000여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연호지(합덕방죽, 연제, 합덕지)는 이제 농경지로 변하여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예당평야는 지난 1979년 삼교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완

### I. 서 론

#### 1. 연구목적

고대 한국의 수리문화의 발생지로 전국 5대 평야중의 하나인 충남 예당평야가 아산만의 개발과 더불어 많은 임해지역

\* 연구과제 수행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도덕현 교수님(건국대 농공학과)영전에 이 논문을 바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료된 이래 우리나라 주곡생산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왔고 미질이 양호하여 전국 어디서나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삼교천이 한기운대를 복류하고 있어 용수원이 풍부하고 관개배수가 잘되어 있어 과거와는 달리 농경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발전되었다. 더구나 역천 하류에 위치한 석문 대단위 간척사업이 완료되어 전국 최대의 주곡생산지는 물론이고 서산을 연결하는 稻作 벨트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의 농업문화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에는 연호지가 크게 기여해 왔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김재평야의 벽골지 다음으로 유서 깊은 저수지로서 세종실록,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등에 그 규모가 기록되어 있듯 이 지방은 물론이고 고대 한국 농업문화의 발생지로서 농업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추호도 손색이 없다.<sup>1)</sup>

石隅川을 가로막아 형성된 연호지는 1964년 완공된 예당저수지의 농업용 수로가 이곳에 도달하여 연호지가 농토로 전용되기 전까지만 해도 소들강문의 유일한 젖줄의 몫을 다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난날의 애환을 말해주는 정조 24년에 세운 증수비와 그 후 2차의 증수비 및 목사의 비석 등 8개의 비석만이 제방 남쪽 논둑길 옆에서 모진 비바람에 닳아 자구의 식별마저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 수문 6개소 중에서 하루 12가지 영롱한 색을 발하며 이 지방의 풍년을 돌봐 준단던 전설속의 용이 살던 龍泉은 합덕읍의 쓰레기장으로 이용되었고 제방 사면보호석축은 산산이 파손되어 있는 등 귀중한 농업문화재가 소멸되어가는 안타까운 실태에 있다.

그러던차 뒤늦게 정부에서 합덕방죽의 농업문화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지정문화재 제70호로 지정하였으며,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연호지의 일부를 복원하여 내륙농업문화 보존 및 농업교육장으로 발전시키고자 35억원의 예산규모로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다.<sup>2)</sup>

그러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제방자체의 보수뿐만 아니라 과거 많은 전설이 담겨 있던 저수지까지를 일부 만이라도 복원하고 아울러 농업전시관을 건설하여 주변농가에 산재, 관리의 소홀로 부식되어 가고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각종 농업 문화재를 수집전시하여, 농업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는 총 60억원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재원 35억원으로 아무런 역사적 고증없이 제방만 2~3년내에 복원하고 농업교육시설만 건설하는 것으로 그칠

경우, 소기의 개발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므로 우선 합덕방죽에 대하여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체계적인 고증연구를 통하여 농업수리문화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농업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서를 조성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내조사방법과 현지조사 방법의 병행으로 이루어졌다. 실내조사 방법에서는 합덕방죽에 관한 역사적인 고기록, 사진, 지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수집하여 그 당시 합덕방죽의 모습을 복원해보고, 지금까지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았다. 현지조사에서는 촌로들과의 대담 및 현장에 남아있는 합덕방죽 관련 유물·유적 등을 추적하여 그 실체를 밝혀보려고 했다.

## II. 연호지 복구에 있어 농업문화사적 배경

### 1. 연호지 개관

합덕방죽은 각종 문헌, 비문, 구전에 의하면 合德池, 合德堤, 合德堤堰, 蓮湖, 蓮池, 蓮堤, 荷湖 등으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소재지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1번지이고, 1964년 이전에 이 방죽의 제방길이는 1,771m이고 둘레는 8~9km로 나와 있으며 저수면적이 溜池 부분만 103정보(또는 105정보)라 하나 실제 저수 총면적은 유지 부분이 105정보, 堤內畚이 30정보, 방죽논 이외논(타인 소유)이 40정보로 합계 175정보(1,7365km<sup>2</sup>)였다.<sup>3)</sup>

또 옛날에는 상, 중, 하 3단계로 제방이 축조되어 上築, 中築의 농토에도 관개하였다 하니<sup>4)</sup> 매우 큰 저수지였음을 알 수 있다. 방죽둑은 마치 사행천처럼 굴곡으로 되어 있으며 관개면적 이른바 물리면적은 무려 726정보(7.2km<sup>2</sup>, 719.9ha)로서 방죽 아래 6개 부락인 합덕읍 합덕리, 옥금리, 도리, 신석리, 대합덕리, 점원리 등의 광대한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점원리와 합덕리 논은 九萬里淤에 저수된 물을 이용하고, 합덕 방죽의 물은 그 이외 4개 부락 논에 물을 대고 남아야 이용할 수 있었다 한다. 그리고 수명 즉 水門은 모두 9개소가 있었으니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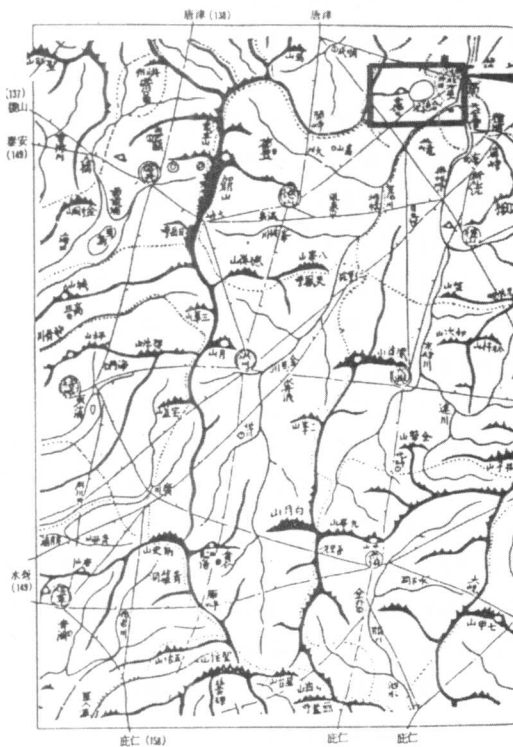
上黑水門(상흑부락 소재 논에 관개), 下黑 수문(하흑부락에 관개), 高坪수문(고평부락에 관개), 玉琴 수문(옥금부락에 관개), 島里수문(도리부락에 관개), 合德里수문(합덕리에 관개), 本洞수문(대합덕리 관개), 제물수문(이것은 簡易수문으로서 독립의 좁은 면적의 제한된 논에만 관개하는 水門) 및 外水門(客水門으로 홍수기에 객수를 배수하는 수문) 등이 있었다. 그런데 사용당시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수문은 오직 1개소로서 그것은 이른바 '왜목'이라 부르는 객수를 빼내는 水門이다. '왜목'을 보통 '餘水吐'라고도 칭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서기 1925년(大正 14年) 12월에 콘크리트로 축조된 것으로 제방 외안에는 '大正拾四年 十二月 日溜池餘水吐 口竣功'으로 음각되어 있다. 원래 이 왜목은 방죽역 대합덕리 거주 이형진씨역과 연제비석군 사이에 있었으나 그후 언제인가 현재 위치로 자리를 변경하였고 또한 모든 수문의 축조 재료는 원래는 生木이었고, 그 다음에는 석재, 그 다음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한다.<sup>5)</sup>

다음으로 호수 중앙에는 약 150평정도 크기의 湖中島가 있었다. 이 섬은 옛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1939년(己卯年, 昭和 14年)에 무려 16개월 계속된 大旱災 당시 이 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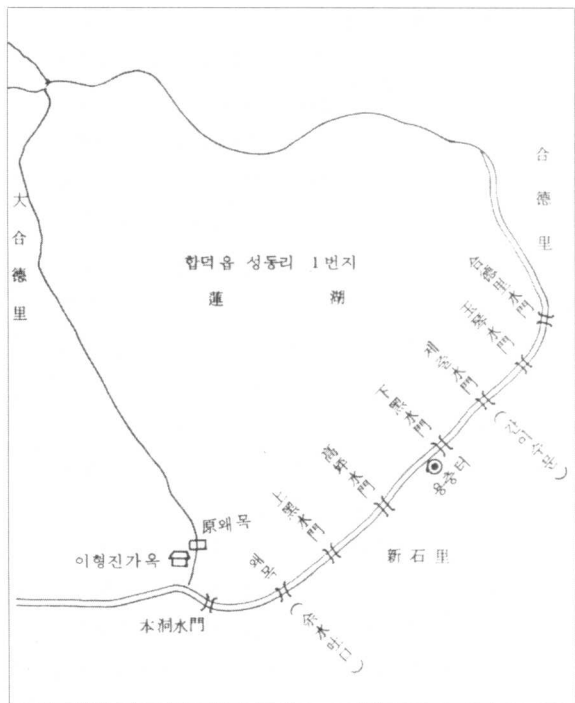
가 바짝 말라 일종의 준설 사업으로 유지부분에 퇴적된 토사를 농기구를 이용하여 지게로 운반해 조성했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 후인 1967년경 이 저수지를 농경지로 변경할 때 허물어 버려 지금은 흔적조차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방죽에는 연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여 못을 뒤덮어 버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물고기가 무수히 많아 어종이 다양하여 낚시꾼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고 역시 수초도 다양하였다.

현재 제방의 높이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4.0m, 폭은 위는 평균 6.5m, 아래 즉 기초부분은 평균 11.0~18.0m이나 1964年 廢地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蓮池橋란 교량이 있어 석우천 냇물을 흐르게 하고 있으나 저수지로 쓰던 때는 없었던 것을 1987. 8. 30. 대산 건설에서 만든 것이다.

제방 내부는 모두 護岸石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시인 서기 1913年(大正二年)에 시행했음을 연제석축비가 입증하고 있으며 여러 해동안 공사가 계속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석재는 합덕리 '바위박이' 마을 산에서 다이나마이트로 바위를 부셔서 이용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사를 담당하지



〈지도 1〉 대동여지도에 나와있는 합덕방죽(1861년)



〈지도 2〉 합덕방죽 수문위치도

않고 모두 중국인 석공과 석축 기술자들에 의하여 축조되었다 한다. 그리고 약 80년전에 이 석축공사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 호안석축 공사는 모두 정부에서 담당했으므로 예산총액과 동원된 인원 등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당시 수직으로 축조한 것을 자유당 말기인 1956~1959년간에 본군 출신 印泰植 재무장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경사지게 다시 공사를 했다. 현재는 흠에 묻혀 버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석축 부분을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제방 내부 호안 석축공사 이전의 (1913년 이전) 제방 내벽은 어떠한가 조사한 결과 가을 및 겨울엔 벗겨짐으로 이영을 엮어서 독안벽을 덮어 호파로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여 왔다 한다. 1913년 제방 석축 공사 이전에는 홍수에 의해 제방의 파괴나 유실이 매우 빈번하여 동네 부역에 의해서 제방보수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 2. 농업 수리사적 배경

洪思俊은 백제 제27대 威德王(554~598)시대 또는 제30대 武王시대(600~641)로 추정하고 있으며 洪炳哲은 이곳의 전설인 후백제의 건국자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과의 전투기간인 서기 918년경~935년 사이의 어느 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즉, 이곳 주민들의 전설과 흥병철의 논문에 의하면 후백제의 견훤은 騎兵과 步兵 9천명과 軍馬 500여 마리(또는 6천頭)<sup>7)</sup>를 합덕 城東山에 주둔시키고 教鍊場과도 같은 堡壘를 쌓고 산 밑에 陷凹한 습지를 파서 군마의 음료수용 못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 후 주민들이 補築하여 저수지로 이용하여 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東國輿地勝覽 沔川郡 山川條에 '碧骨池在郡東'의 기록이 있는데 洪思俊은 위의 '碧骨'을 '벼골'(稻郡·稻鄉)로 보고 그 근거로 全北 金堤를 백제 시대에는 碧骨郡으로 표기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했으며 稻穀을 백제에서는 '벼', 신라에서는 '나락(羅祿)'이라고 불렀고 前記 碧骨池는 合德池이며 이것은 백제시대의 축조물임을 입증하여 준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다음으로 이 연호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에 蓮池가 合德에 있는데 地長이 3060尺이고 130結의 田(畓)에 灌溉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고 또 세종실록에는 성종4년 10월 기미에 영사 洪允成이 왕에게 제언하여 우수로 무너진 합덕지 제언을 수축하는데 堤堰別監을 파유하여 공사를 감독시키기도 하였다.<sup>9)</sup> 또 성종 5년(1474년) 10

월조에 洪州 合德堤堰이 決毀되어 岫밭이 되었는데 領事 洪允成이 왕명으로 현지에 가 보고 다시 수축했던 바 금년에는 근년에 없는 풍작을 이루었다는 洪允成의 狀啓가 있었다.<sup>10)</sup> 연산군 7년 5월에는 합덕방축이 顯淑公主에게 사여되어 있었는데 持平 金耀과 正言 金崇祖 상계에 의해서 本主에게 돌리도록 하고 있다.<sup>11)</sup> 이어 연산군 12년(1506) 正月條에 洪州 合德堤 안의 논으로 쓸 수 있는 土地를 張淑容에게 주게 하라는 傳旨가 있었고 또한 중종 2년(1507) 正月條에는 洪州 合德池를 忠勤府에 賜給한 것이 不當하다는 司憲府의 장계가 있었으나 允許되지 않았고 같은 해 다시 이를 神堂에 반환하자는데도 允허하지 않았다.<sup>12)</sup> 그 후 효종 3년(1652) 10月條에 洪州 合德堤가 모든 宮家에 들어가는 立案이 가장 한심하다는 鄭維成의 말에 停罷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세기 이후부터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즉 移秧法이 숙종·영조시대에 거의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이 이앙법에 있어서는 모를 기르는 과정이나 옮겨 심는 과정에서 적당량의 물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위한 수리 문제가 과거보다 더욱 더 중요시 되었다. 이에 따라 저수지의 신축과 수축을 위하여 현종 3년(1662)에는 堤堰司가 설치되었고 정조 2년(1778)에는 堤堰節目이 반포되었다. 즉 正祖末 純祖初 전국에 관개되고 있는 제언은 3,529개소, 泚가 2,265개소로서 18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저수지의 총수가 6,000개에 달하였다. 이때 전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는 洪州의 合德堤, 咸昌(尙州)의 恭儉池, 金堤의 碧骨池, 延安의 南大池 등이었다.

그러면 이 방축의 수축사를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인조 8년(1630년) 봄 암행어사 金有淵이 480兩의 기부금을 가지고 저수지 浚濬을 시작하여 정조 24년(1800년) 여름에 준공했으며 영조 44년(1768년)에는 홍주 목사 洪良浩가 부임하여 11,000명의 郡內 장정을 동원하여 준설 및 補修공사를 실시하였고 정조 2년(1778년)에는 郡民 4,553명과 인근 군민 3,500명을 동원하여 決潰된 부분 2개소를 수축했으며, 정조 16년(1792년)에는 군민 3,000명과 인근 군민 3,500명을 동원하여 수축했으며 이어 정조 24년(1800년) 목사 金履鎬가 蓮堤를 중수한 것이다. 그 후 철종 2년(1851년) 4월 28일 방축의 준설, 그 뒤 매년 천안, 덕산, 면천군민 협조로 필요할 때마다 보수공사가 계속되었다.<sup>13)</sup> 연호는 약 230년전 大洪水로 인하여 제방의 중간부분이 크게 파괴되었고 그때의 상처가 바로 龍泉이라 한다.



그리고 관리인으로 進士 金泰潤이 上穉을 조직하고 계장의 직책을 담당해 오다가 그 70년후인 1820년경부터 監役 俞啓煥, 兵使 李廷珪, 다시 俞啓煥, 金基性 등이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연대는 미상이나 서울 ××弘이란 자는 이 방죽을 개인 소유로 하려고 農商工部에 濟證 수속까지 하였으나 金喆鎬가 農商工部에 수없이 왕래하면서 진정하여 종전과 같이 共有로 원상복귀시켜 합덕연제수리계에서는 사례금도 지불하고 善德碑도 건립했다. 연호 경비가 어려움을 알고 金有淵 御使가 1000여원, 俞致興 承旨가 버 40石을 흔쾌히 회사했다. 또한 서기 1911년(明治 44년) 10월에 金基性 外 6명의 발기에 의하여 제방을 수축하였으며 이어 다음해인 1912년 8월에도 金喆鎬 外 5명의 발기에 따라 경비를 각출하여 연호를 수축하였고 서기 1913년(大正 2年) 일제 당국의 산미증산과 수리개척에 부응하여 독자기인 俞鎭相, 金喆鎬, 曹秉學, 張斗植, 金鍾勳 등 여러분들이 발기 노력하여 몽리지역 지주들로부터 공사비 3만여원을 거두어 餘水吐를 만들고 제방의 內壁을 모두 석축으로 완공하는 거대한 공사를 시행했다. 그 후 1940년(昭和 15年) 大旱災로 주민들의 기근이 심하자 그 구제를 위하여 1만 3,000원의 공사비로 고갈된 연호의 밑바닥을 준설하였다.

다음으로는 이 합덕방죽의 소유권자 변천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합방(1910년) 이전은 국유로 있다가 합방후 조선 총독부에 의해 1912년 토지조사령이 공포되고 동시에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이 개시되어 1918년까지 7개년간 계속되었는데, 이때 합덕지도 共有로 신고되었으니 당진군 토지대장 共有者連名表에 의하면 1912년(明治 45年, 大正 1年) 5月 28日 合南面 木井里(현재 합덕읍 대합덕리) 金喆鎬 等 六十七人의 공동명의로 신고하여登記되었고 그 뒤 1937년(昭和 12年) 2月 10日에는 合德面 新石里 122番地 朴漢奎 等 三十人 共有로 所有權 移轉되었고, 8.15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1962年 11月 30日에는 합덕면 운산리 273 朴鍾聲 等 30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당시 합덕방죽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즉 禮唐저수지의 농업 용수가 합덕방죽 관개 지역 전체에 공급되자 이 합덕방죽은 논으로 변동되어 실제 소유권자(본래 명의자들은 거의 다 작고하였고 대부분 그의 후손들)와 몽리지역 주민들간에 소유권쟁탈 문제가 제기되어 몇 해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합덕방죽 持分權者 대표위원장은 張義煥(서울 연락 책임자는 朴鍾聲, 實務는 郭明東)으로서 그는 그 이전인 1960

년 어느 날 소유권자들이 회합한 자리에서 三興財團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三大癌인 飢餓, 無知, 疾病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장, 학교, 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수포로 돌아갔다. 그후 持分權者들은 자기 持分을 각각 賣渡하기에 이르러 1963年 1月 12日 天安市 五龍洞 25번지 金錫熙에게 一部를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몽리지역 주민들은 자기들도 합덕방죽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蓮堤水利 財産清算委員 18명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장으로는 徐禹重, 崔峯鈺, 金永敏 등이 歷任) 1964년 합덕방죽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大田地法 洪城支院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재판은 장기화하여 1967年 5月 서울 高法에서 원고(蓮堤水利契 財産 清算위원장 金永敏)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이미 서울 西大門區 阿峴洞 1의 398 金奎萬 外 33人 소유였음) 1967年 5月 10日경 지분권자 金奎萬과 몽리지역 8개동민 대표들(청산위원회)과의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여 金奎萬은 합의금으로 당시 일금 600만원을 청산위원회에 지불하여 소송은 종결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김규만은 1971. 11. 24 유지였던 저수지 105정보와 堤內畚 30정보 도합 135정보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 合德池는 池沼에서 溜池로 다시 畚으로 地目이 變換되었다.<sup>14)</sup> 畚으로 조성된 논은 개개인의 소유로 변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농업민속문화적 배경

조선 후기 유명한 치수사업의 공로자인 洪耳溪는 그의 저서인 '南大池 疏濬記'에서 '南大池는 湖西의 合德池와 嶺南의 恭儉池와 더불어 東國 三大池의 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 병조판서였던 金陽澤이 '홍주의 합덕지는 우리나라의 삼대제언인데 방죽이 깎여 나가 수축하여야 한다'고 왕에게 아뢰니 왕이 수축하라는 명이 있었다.<sup>15)</sup>

이와같이 유명한 합덕방죽에는 매년 겨울이면 '용갈이(龍耕)'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으니 해마다 결빙기인 음력 정월 14일 밤 저수지의 水面이 마치 눈밭을 쟁기로 갈아 놓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 갈린 위치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예측한다. 즉 어느 해는 제방 가까운 곳에 갈리고, 어느 해는 제방에서 먼 거리인 위쪽에 갈리는데, 제방 가까운 곳이 갈리면 흉년이고 먼 곳인 위쪽에 갈리면 풍년의 예보였다 한다. 매년 목격했던 이곳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독 가까운 곳(溜池부

분)은 수심이 깊은 곳이고, 독에서 거리가 먼 부분은 수심이 얇은 곳(堤內畚부분)으로서 옛날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하늘의 강수에만 의존하여 모내기를 하였으므로 물이 저수되지 않는 높은 위치의 논 즉 乾畚인 天水畚부터 모내기를 하기 시작하여 낮은 위치의 水畚까지 모내기를 한다.

이러한 용경의 모습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용이 방죽을 간다'고 하였다.

洪錫謨의 東國歲時記 11月 月內條에 보면 [충청도 홍주 합덕지에 매년 겨울이 되면 용이 땅을 가는 이상한 변이 있었다. 동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세로로 언덕 가까이 쪽으로 갈아 나간 자취가 있으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북편을 가로질러 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동서 남북 아무데로나 종횡(가로 세로)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다음 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 경상도 밀양 南池에도 용이 얼음을 갈아 다음 해의 일을 징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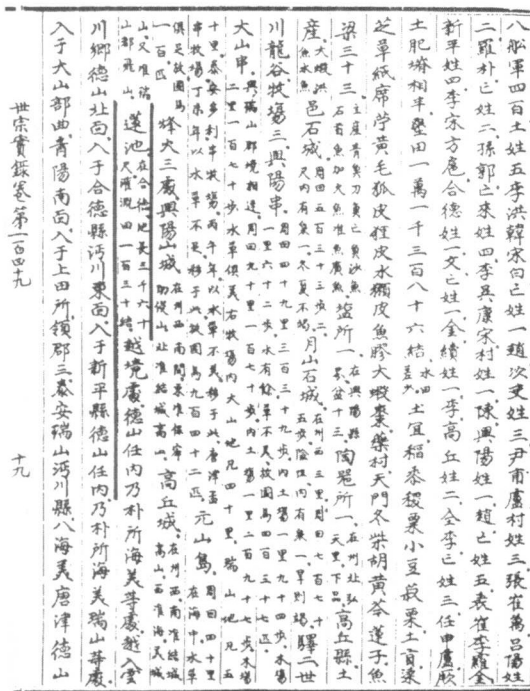
어쨌든 합덕방죽의 '용갈이' 현상을 몇 십년 목격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제방에서 윗쪽은 북쪽으로,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 아래쪽은 남쪽 즉 제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방

(용층이 있었던 곳 중심)은 아래쪽이면서 남쪽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은 틀림없이 예언처럼 들어 맞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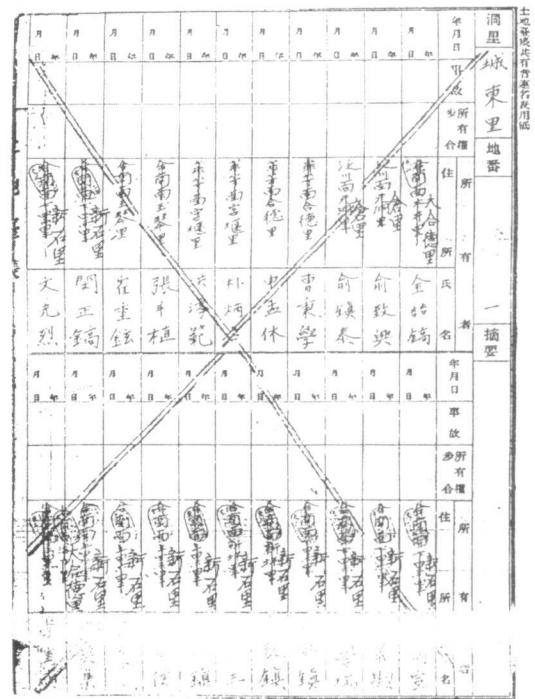
어쨌든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용갈이(龍耕)'라는 農占을 쳐서 다가올 다음 해의 풍흉을 미리 알아 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큰 저수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모양이다.

다음으로는 이 합덕방죽과 관련된 우리 內浦地方의 세시풍속으로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에는 반드시 농우에게 밤참으로 소죽을 평상시 아침, 저녁과 같이 익혀 먹이는 풍습이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아마 1950년대까지 우리 고장 각 가정에서 실천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밤참을 먹는 소들은 항상 온몸에 땀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어른들은 합덕방죽에 가서 龍耕을 치고 와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는 용경을 치고 온 일도 없이 소 외양간에서 평상시와 같이 있었을 뿐이고 그날 밤은 세시 풍속으로 열나흔날 행사가 많은데 새해에 풍년이 들기를 빌면서 그 해에 소도 일 잘해 달라는 뜻으로 밤참을 주는 일종의 祈豐행사의 하나로 여기지며 합덕방죽이 우리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저수지이니까 유래했던 것이다.



<자료 1> 조선실록에 기록된 합덕방죽



<자료 2> 합덕방죽 토지대장(서기 1912년)

그리고 이 용경의 현상은 과학적으로 판단한다면 큰 추위가 여러날 계속되자 결빙된 것이 더욱 더 증첩되자 그 얼음의 팽창면이 위로 터지면서 마친 논밭을 갈아 놓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며 이와같은 용갈이 현상으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칠 수 있었던 것은 수천년간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그 정확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 고장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이면 직접 합덕방죽에 와서 용경쳐진 위치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그날의 행사처럼 지속해 왔었고 원근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금년엔 용경을 어떻게 쳤느냐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문답했었다. 특히 정월 보름날 이후 첫 버그내의 장날이면 이 용경이 주요 화제거리가 되었다. 뒷쪽이 갈렸다면 풍년예보이므로 기쁨의 안도감을 갖게 되지만 아래쪽 제방부근이 갈렸다면 흉년 예보이므로 깜짝 놀라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와같은 세시풍속은 수천년간 생활해온 우리 민족의 농경 문화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 합덕방죽에는 매년 독제를 지냈으며 날이 오래 가물면 기우제도 어김없이 거행했다.

독제는 매년 음력 7월 용날(辰日) 합덕연제수리계에서 주관하여 방죽제방 중간부분인 왜목과 상혹수문 사이 독위에서 몽리지역 경작자 대표와 수리계장, 이사 등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돼지머리와 3색실과(과일)와 祭酒와 포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견훤장군에 관한 축문을 낭독하면서 마치 산신제처럼 거행하여 방죽의 제방이 견고하기를 모두 기원하였다고 한다. 기우제는 장기간 한발이 계속될 때 수리계 주관으로 시행하며 당진군수가 제관으로 참석하는데 제방에서 약 100m 이상 거리에 있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용샘에서 통돼지를 제물로 놓고 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냈고 제사가 끝나는 대로 통돼지는 그 용샘에다 집어 넣었다. 그것은 그후 용이 먹었다고 한다.<sup>17)</sup>

한편 합덕방죽에는 두종류의 민요<sup>18)</sup>가 전해오고 있으며, (합덕방죽에 줄남생이 늘어 앓듯)이란 속담이 전해오고 있다.<sup>19)</sup>

### Ⅲ. 연호지의 수세문제와 농민혁명

#### 1. 혁명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水利문제로 농민소요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는 합덕 연호지와 상주의 공검지, 김제의 벽골지에서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충청도 홍주목 창리에는 李廷珪라는 양반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정규는 충청도 林川郡(현:부여군) 출신으로 본관은 韓山으로 參判 李顯植 再從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처음은 內職으로 근무하던 武官이었고 그후 충청도 德山군수, 평안도 宜川府使, 전라도 左水軍節度使로 있다가 사임하고 洪州牧 新南面 倉里(現:합덕읍 합덕리)로 낙향하여 현재의 구합덕 천주교회자리에 큰 저택을 짓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2년간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창리 본가로 내려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란은 2개월 후에 발생하였다.

이정규가 창리에 거주하는 동안 부근에 거주하는 상민들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였다. 재산이 여유있는 상민들에게는 가혹한 방법으로 상민의 재산을 강압으로 몰수하였다. 어떤 농민은 재산을 몰수 당하고 생계가 궁핍하여, 매일 연호에서 낚시질로 팔자 좋게 소일하는 李兵使 옆에 수일간 나가서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애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농민은 그만 방죽에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병사의 평상시 횡포를 잘 아는 일반 농민들은 이병사가 발로 차서 방죽에서 익사하게 했다고 유포하자 모든 농민들의 분노는 매우 컸다. 또한 이병사는 연호에 무성한 蓮根 채취를 위한 부역을 시키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겨울철까지도 동원하므로 농민들의 고통은 극심하였다.<sup>20)</sup>

합덕방죽 주변 동네 사람들이 배가 고프 물고기를 잡으려고 당시 유일한 방법인 고래박 등을 이용하여 물이 가능한 포강이나 큰 우물을 여러 시간 동안 땀흘려 물을 퍼내면 이병사 집 하인들이 왕래하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이정규에게 알리면 물을 거의 다 퍼내고 고기를 잡을 정도만 되면 이정규가 직접 현장에 도착하여 그 양반의 위력으로 하인들을 시켜 고기를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감행되었으므로 당시 그곳 주민들은 고기 잡으러 물품을 갖는 것을 '李兵使구멍'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이정규의 농민 압박과 행악질이 극심하자 농민들은 그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를 다른 곳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당시 연제수리계 계장이란 직책을 기화로 삼아 합덕방죽의 얕은 부분은 개간하여 논을 만들고 깊은 곳만 저수지로 만들며 관개지역 부락민에게 새로 水稅를 부과하여

징수하려 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크게 놀라 경제적 부담이 커짐은 물론이고 저수지의 면적을 축소시켜 버려 유일한 수원의 부족으로 장차 영농의 불안이 커지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에 큰 위협을 받아 6개 부락 농민들의 격분은 극도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사실 연호의 水稅 징수계획은 이 보다 훨씬 먼저인 고종 21년(1884) 당시 泛川面(현; 우강면) 成元里 거주 孫士彬이 정하고 시행하려하자 당시 下黑里 거주 文忠植, 崔應洙 두 사람이 대표로 漢城에 올라가 당시 議政大臣 尹容善에게 진정하였다. 당시 그는 이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윤용선은 左營大將 閔應植에게 수세징수 중지명령을 내려 수세징수는 좌절되고 당시 6개 부락민들은 閔氏의 조치에 감사하여 連堤에 그의 不忘碑를 세울 일까지 있었다. 농민들은 이정규의 水稅부과와 연호 개간계획에 대한 원한과 불안 초조로 근심하면서 그저지 대책에 부심하였다.

## 2. 혁명의 진행과정과 결과

부락민들은 수세부과에 대한 대책으로 연호 서편 산기슭 '도량당이'에 비밀리에 모여 수일간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우선 이정규의 횡포와 농민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하여 당시 洪州牧使에게 소장을 올리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옥금리에 거주하는 羅聖魯, 倉里에 거주하는 李永鐸 두 사람이 이정규의 악행을 상세히 列記한 血怨錄을 기초하여 부락민 약 800명과 함께 홍성으로 가서 홍주목사 李勝宇에게 호소하기를 이르렀다.<sup>21)</sup> 이에 이목사는 자세한 사정을 모두 청취한 후 농민들에 대하여 일단 귀가하도록 명하고 아무런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李廷珪 兵使와 같은 부락인 新南面 倉里 농민들은 협박과 공포로 소장 제출에 동행하지 않았다.

그때 농민들이 洪州牧使로 출발한 사실을 인지한 이정규는 당시 성동리 거주 前 庇仁군수 表明瑞에게 서신을 보내어 홍주목(현:홍성)으로 동행한 참가 농민들을 전원 살해 하도록 홍주목사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島里에 사는 金鳳露의 아들 金錫賢이 부친의 명으로 表군수택에 가는 사람을 만나 이병사의 글을 보고 크게 놀래어 그 사실을 이영탁에게 긴급히 통지하였다. 이영탁은 이병사의 살해 요청 사실을 귀가중에 있던 약800명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그들은 그날 귀가하지 않고 함덕방죽 龍秋(용연, 용충) 부근에 모여 황혼이 된 시각까지 최후 수단을 결의하였다.

서기 1893년 음력 선달 그믐 용충에 집합된 농민들은 그곳 신남면 창리 농민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죽인다는 결정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을 전해들은 신남면 창리 부락민들은 크게 놀라 용충에 뛰어와 모든 사람과 만나서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참가하지 못한 참뜻을 해명하고 이 시간 이후는 모든 사람과 함께 행동할 것을 맹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모든 고통이 이정규 1인에 원인이 있으므로 그를 축출하기로 결의하고 대표자로 나성로와 이영탁을 추대하고 최후의 행동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날 오후 8시경 정을 치고 관련 부락민에게 사태의 위급성을 통지하자 모든 사람들은 방죽 둑으로 모여들어 그 수는 무려 1,000명에 도달했다. 군중들은 용충 동쪽 주막에 이르러 그 집에서 술가지와 벼짚으로 햇불을 만들어 함성을 지르며 방죽을 지나 이정규집을 포위하고 나성로, 이영탁이 이정규를 만나 농민 탄압의 절대 부당, 연호의 농경지로의 개간과 水稅 부과의 부당성 등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모든 농민을 죽이려는 홍주목사에게 보낸 서신은 무엇이냐고 추궁하였다. 처음에는 거만한 태도로 응수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며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앞으로는 부락민에게 협력하겠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농민대표 이영탁은 이정규의 태도가 돌변함은 궤변이라 하면서 問答의 불필요함을 말하고 일어섰다. 이에 이정규집과 주위에 모여 있던 농민들은 변소와 객실과 난가리에 불을 지르고 본채와 부속건물 등 수십채의 가옥 전체에 방화를 하였다. 이를 본 이정규는 침과 자식만 데리고 방죽의 얼음 위를 거쳐 도망했다.

이를 목격한 농민 2~3명은 추격하여 붙잡으려 했으나 잡을 수 없었다 한다. 농민들은 이정규와 그 가족은 살해하지 않고 원한을 해결했지만, 자기들의 폭동에 대하여 어떤 처벌이 있을까 불안과 초조한 생각을 했다.

그들은 다음 해 즉 고종 31년(1894) 음력 2월 6개 부락민 800여명이 다시 홍주목사 이승우에게 가서 탄원서를 올려 관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목사는 통고할 때까지 귀가하여 대기하라 하므로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6개 부락민 다수는 재차 충청도 공주 監營에 가서 관찰사 趙秉鏞에게 동일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후 역시 아무런 재정을 내리지 않았다. 공주에서 귀로에 그들은 귀족이었던 閔泳達, 泳喆 2인을 禮山에서 만나 신례원에서 숙박하며 지난 번 방화에 대한 관대한 처

분을 요청했다. 그후 충청도 감영에서도 아무런 결정 통지가 없었다.<sup>21)</sup>

그런데 이정규는 방화 당일 범천면 송산리 안재명의 집에서 수일간 잠복한 후 개성으로 도주했고 다시 한성으로 올라갔다 한다. 그후 이정규는 조정으로부터 유배형이 내려져 2년간 섬으로 귀양갔으나 그 섬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귀양살이를 마친 그는 그후 한성으로 와 있다가 다시 충청도에서 살다가 다시 서산군 삼밭골(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마전부락)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망했다 한다. 그리고 농민 대표의 지도자였던 나성로, 이영택은 1894년 5월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동학군에 참가했다가 그만 무참히 처형되었다 하는데 그 시기는 불분명하다. 1894년 11월 공주 牛金峙 전투에서 정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에 의하여 동학군이 참패당한 후일 것으로 추측된다.<sup>22)</sup>

#### Ⅳ. 연호지의 복구사업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충남의 농업지대로서 각광을 받던 서산, 당진, 예산, 아산등 내포지방의 중심지역은 최근 이원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당진의 송악면, 송산면, 석문면과 서산시 대산읍등 임해지역이 철강단지 및 유화단지로 급부상하여 임해공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내륙지역인 당진의 합덕읍, 우강면을 비롯하여 예산군, 아산시, 홍성군, 청양군 등은 아직까지도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여 농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공업화, 산업화 정책에 의하여 급변하고 있는 내포지방의 예당평야 한가운데에는 아직도 1000여년전에 만들어져 농업수리문화의 꽃을 피웠던 합덕방죽의 유구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 합덕제를 복원함과 동시에 합덕읍 성동리 일대에 농업후계자 혹은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장, 농산물전시장, 농업자연사 박물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구 합덕방죽이었던 곳은 현재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원상 복구가 어렵지만 제방에 가까운 일부지역만이라도 물을 가두어 연꽃을 심어서 상주시의 공검지와 같이 일부 복구가 필요하다.

상주시에 있는 공검지도 현재 일부 복원되어 제방위에 노래비와 공검지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일부 경지에 물을 대어

연꽃을 심어서 복원하여 보전하고 있다. 특히나 아산, 예산, 홍성, 서산, 당진 등 내포지방의 질 좋은 미작지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내륙농업벨트로 묶어서, 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당진의 삼교천 유원지,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피성지, 신리성지, 양촌성지, 예산의 추사고택, 덕산온천, 수덕사, 가야산, 아산과 도고의 온천장, 골프장, 서산의 해수욕장, 수산물 등의 각종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농업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복구는 제방의 정비보다는 우선 저수지의 일부를 경북 울진군 연호정 정도의 규모로 복원하여 연, 올망대 등 50여종의 수초를 심도록 한다.

농업교육장은 100명 정도가 1~2박 정도로 숙식하면서 거거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장 2층에는 관리사무소를 두어 저수지내의 수초관리 및 옛 저수지 구역내에 있는 논에는 조광, 서광, 아끼바리, 통벼 등 다양한 벼품종을 재배하여 교육자들이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포장에서는 보리, 찰보리, 밀, 호밀, 옥수수, 수수, 메밀, 감자, 수박, 참외, 오이 등을 재배하고 설치하여 관광농원 및 농작물별 토양침식정도를 알 수 있게 하여 산교육장이 되도록 한다.

제방은 저수지와 용천을 복구하기 위하여 굴착한 토사로 성토를 하고 제내측에는 석축공사로 간단히 보수하여야 한다.

또 제방에는 합덕방죽의 중수비 및 노래비와 독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단과 합덕농업혁명기념탑과 비석을 세우도록 한다. 제방을 정비하여 꽃나무를 심고 청소년 자전거 일주도로를 포함하여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저수지에는 우렁이, 가물치, 메기, 붕어, 뱀장어, 미꾸라지, 달치, 송사리, 민물게 등이 자라게 하고, 뜸부기, 두루미, 왜가리, 고니, 기러기, 오리 등 철새들이 날아올 수 있는 생태서식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만의 경우도 전국을 5개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水土保全局을 두고 농업교육장을 두어 청소년 및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현지교육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군단위에 해당하는 카운티에서 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간부들은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 후면



▲ 전면





〈사진 1〉 합덕방죽 옆에 서있는 비석

- 상단좌측 : 암행어사 김유연 영세불망비(1851) · 상단우측 : 연제중수비(1800)
- 하단좌측 : 순찰사 심상훈 영세불망비(1885년) · 하단우측 : 목사 김문제 영세불망비(1885년)



## V. 결론

合德堤는 후백제에 축조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70호로써, 예전에는 전국 5대평야의 하나인 예당평야에서 모리면적 726ha의 관개용수의 젓줄이었다. 둘레 9km, 저수면적 103ha의 넓은 저수지 연변에는 대부분 연꽃이 자라 이 지역 蓮湖문화의 상징이었으며, 각종 철새와 어패류가 서식하던 생태계의 전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 1964년 禮唐池가 건설됨에 따라 유서깊은 합덕지는 그 기능의 상실로 논으로 전환된 이래 1771m의 제방은 방치되고 제방을 중수한 공적비는 기초가 들어난 채 초라한 상태로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저수지의 일부라도 복원코자 주민과 출향민은 지난 30년간 관계요로에 건의해오던 차에 아산만 개발과 더불어 임해지역이 공업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 연호지 주변에서 부유롭게 살면서 연호문화의 맥을 이어온 합덕읍은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행정당국은 우리나라 농업문화의 발상지였으며 많은 전설이 얽힌 이 저수지에 대한 고증도 없이 합덕제의 복구와 동시에 내륙농업개발의 일환으로 관광지 및 농업교육장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 출향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합덕제의 복원은 물론이고, 애환이 서렸던 연호문화를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고증을 기초로 하여 제방 주변의 적절한 위치를 모색, 관련시설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농업토목, 향토문화사학자,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연구에 의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옛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가가호호에서 관리의 소홀로 부식되어 가고 있는 농기구를 비롯한 농업문화재를 수집전시할 농업박물관 건립과 기타 필요한 시설배치를 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과 출향민의 정서연구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여 복구후 농업문화의 창달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나 합덕방죽의 수세문제로 붕괴했던 합덕농민혁명은 우리역사에서 농민혁명의 효시로 볼 수 있는 고부 동학혁명보다 두달이나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때 역사적 평가를 재조명하여야 하겠다. 또 우리나라 농경문화에서 빼놓을 없는 용갈이 현상에 대해서도 좀더 농업민속학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1964년 예당저수지의 완공으로 합덕방죽은 폐지되어 현재는 개답되어 논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대의 찬란했던 농경문화의 발생지였던 미작지대의 상징화된 농업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보존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농업수리문화에 대한 중요성 제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아산만 일대가 공업화되면서 점차 사암화되고 있는 농업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합덕방죽을 복원하면 농업문화 창달의 정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1. 도덕현, 1989, 10. 12일자, 주간 당진뉴스, 합덕의 상징 연호에 연꽃 피우자.
2. 1996. 1. 18일자, 주간, 당진뉴스, 제238호
3. 충청남도지에는 약 8km, 당진군지에는 9km, 대동지에는 20리 등 문헌에 따라 약간 다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합덕지조에는 둘레 9km, 길이 1780m, 저수면적 103정보, 모리면적 726ha로 나와 있다.
4. 연산군 일기 권40(연산군 7년 6월 甲午) [合德堤有三築上築中築...].
5. 홍석표, 1993, 합덕방죽에 대한 종합적 고찰, 내포문화제5호, 당진향토문화연구소, pp. 40~104.
6. 홍병철, 1943, 후백제왕 견훤과 합덕연호, 반도사화와 낙도만주, pp. 125~132.
7. 충청남도지에는 보병 9천, 마필 6천으로, 당진군지에는 둔병 1만2천명, 말 6천필, 홍사준은 보병 9천, 군마 6천 두로 썼다.
8. 홍사준, 삼국시대의 관개용지에 대하여 - 벽골제(김제)와 벽골지(당진군), pp. 5~21.
9. 성종실록 권 35, [洪州合德堤堰...今又因雨潰決 請遣堤堰別監築之].
10. 성종실록 권 45, [洪州合德堤堰...蓬高之場往臣...].
11. 연산군일기 권40, [合德堤堰 特賜顯淑公州 甚未便...則堂給本主不可賜公州]
12. 중종실록 권 2, [洪州合德池...耕之令者賜給忠勳府...]
13. 備邊司膽錄, 제189책, 正祖22年 7月13日 條

14. 張義煥(합덕읍 운산리), 表大榮(성동리), 金泳敏(대합덕리), 朴容遠(소소리), 金成泰(대전리)씨 등의 설명과 당진군 토지대장 共有者連名表에 의함.  
여기 참고로 蓮堤水利의 歷代 長과 역대 理事(또는 評議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歷代 長 : 兪致興, 高允默, 兪鎮相, 金喆鎬, 金鍾勳, 崔翰榮, 朴漢奎, 金鍾彥, 朴漢奎  
歷代 理事(또는 評議員) : 張斗植, 李文雨, 崔漢基, 朴台信, 孫永奭, 朴昌信, 李鍾純, 朱允興, 許龍俊, 朴昌信, 張斗植, 崔翰榮, 朴鳳來, 朴炳星, 兪鎮燦, 田在翊, 車大昌, 金喆鎬, 朴秀興.
15. 증보문헌비고 제146권 제인조 (洪州合德堤堰爲我國三大堤堰臣年前湖四之行…)
16. 洪錫謨, 東國歲時記, 11月, 月內條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湖西洪州合德池每年冬有龍耕之異自南而縱而薄岸則歲自西而東徑斷其腹則荒…嶺南密陽南池亦有龍耕…)
17. 金泳敏(남, 77세, 농업, 전 합덕 연제수리계장, 충남 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480번지)씨의 답하
18. 두편의 (합덕방죽)에 관한 노래는 아래와 같다.  
〈제1절〉 연꽃일레 연꽃일레 합덕이라도 방죽  
연꽃일레  
피었네 피었네 보았더니 움쳤네  
움쳤네 움쳤네 보았더니 피었네  
〈제2절〉 피었네 피었네 무순꽃이 피었나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불 동안에 움쳤네  
피었네 피었네 무순꽃이 피었나  
무순꽃이 움쳤나, 연꽃이 움쳤네  
움쳤다고 하였더니 불 동안에 피었나
19. 합덕에 거주하는 성씨중 朱氏, 南氏, 成氏가 많아서 여기에서 (줄남생)이란 단어가 유래한 듯하다.
20. 久間健一, 1935, 合德百姓一撥の研究,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西ヶ原刊行會, pp. 61-77.
21. 李光麟, 1961, 李朝水利史研究, 한국학연구도서관, pp. 132-134
22. 久間健一, 1935, 전계서.
23. 久間健一, 1935, 전계서.

## 참고문헌

1. 성종실록 권 35, 권 45
2. 중종실록 권2
3. 연산군일기 권 40
4. 備邊司謄錄, 제189책
5. 신증 동국여지승람, 면천편, 1531년(중종26년)
6. 김정호, 대동지지, 면천편, 1866년(고종3년)
7. 증보문헌비고, 제146권, 제언편, 1908년(융희2년)
8. 久間健一, 1935, 合德百姓一撥の研究,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西ヶ原刊行會
9. 李光麟, 1961, 李朝水利史研究, 한국학연구도서관
10. 김추운, 1996. 삼교천의 역사문화, 당진문화원
11. 홍석표, 1993, 합덕방죽에 대한 종합적 고찰, 내포문화 제5호, 당진향토문화 연구소
12. 당진문화원, 1996, 소들축제 향토문화 심포지움 논문집
13. 이병연, 1993, 조선환여승람, 당진군편, 보문사
14. 이중환, 택리지
15. 김추운 외 4인, 1997, 소들문화 축제의 이론과 실제, 당진문화원